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10월 13일 다시 연다



캐나다 시민들과 영주권자들은 곧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로 이민을 수 있도록 이민신청을 하게되었다.

이 이같은 정부 발표를 학수고대했다"며 "정부 발표가 있기 전부터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이민부는 10월 13일 낮 12시부터 11월 3일 오후 12시 사이에 EDT(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의 후원 양식에 대한 관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초청자 성함 ◆생년월일 ◆출생국 ◆캐나다 거주지 주소 ◆가족 구성원 수 ◆과거 초청했던 이민자 수 ◆전자 서명 ◆체류신분 번호 등을 기입해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영주권 카드, 캐나다 여권, 캐나다 출생 증명서 등)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어 이민, 난민, 캐나다 시민권(IRCC)이 임의로 잠재적 후원자를 선정해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초청장을 보내게 된다. 선발된 지원자는 완료된 후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장 60일이다.

초청자는 18세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민부는 오는 13일부터 11월3일 자정까지 20일간 신청서를 받은 후 추첨을 통해 1만명을 선발한다. 추첨에서 떨어진 낙첨자들에게는 대책은 아직은 없다. 따라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모두가 초청허가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 초청한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는 순간부터 20년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수당을 받을 경우 다시 정부에 반납한다는 서약을 해야한다.

이와 관련, 이민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은 "많은 한인들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이거나 이민대출 상황을 체납했을 경우, 이혼·양육 수당과 같은 법정지시 사항을 어겼다면 초청 자격이 없다. 또 폭행이

나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파산 후 아직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초청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난 3년간의 소득세 정산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부양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4인 가족의 가장이 부모 2명을 초청한다면 이민부의 6명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18년의 경우 가구 총소득이 최소 7만7,095달러, 2017년에는 7만6,015달러를 넘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소득은 매년 세금 정산 후 국세청 발행 세금정산통보서 NOA로 증명한다.

한편 연방이민부가 부모 초청 선발방식을 매년 바꾸면서 일부 한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018년 추첨제에서 다음해 선착순으로 선정 방식이 바뀌었다가 올해 다시 추첨제로 환원한 것이다.

美, 中공산당 등 전체주의 정당 가입했던 사람

이민 전면 금지 -한국 주사파에도 영향?



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과거 가입한 적이 중국인의 미국 영주권 신청과 이민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의 주사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설명했다. 다만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정당 가입자 가운데 취업, 식량배급, 기타 생활에 필수적인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이들은 예외로 됐다.

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미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내 중국인 이민자는 25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책은 중국 공산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외국 태생의 미국인 비율 중 5.5%에 해당한다. 같은해 미국 영주권 취득자 110만명 가운데 6만7000명이 중국인이었으며 멕시코와 쿠바 다음으로 많았다.

4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일 미국 이민국(USCIS)은 '전체주의 정당 가입 여부에 근거한 이민 거부'라는 제목의 정책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는 "별도의 면제 이유가 없는 경우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정당이나 관련 기관의 조직원이거나 과거 가입했던 사람은 미국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SCMP는 이번 조치로 사실상 모든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이민이 막혔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가입자는 2019년 말 기준 9200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정당이다. 거의 대부분의 중국 공직자와 국영기업 임원들이 공산당원에 속한다.

중국인 이민 조처에 오히려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무원 부패 척결을 주장하며 미 영주권이나 해외 여권 보유자를 색출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는 의회에서 미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규정한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고

미 영주권 및 시민권을 가진 공산당원이 몇 명인지 구

이와 관련 환구시보 후시진 편집장은 "이번 제한 정책이 중국의 인재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권자 가족, 유학허가증 소지자

캐나다 여행 허용



캐나다가 가족, 유학 허가증 소지자 등에 대한 여행 제한을 완화했다

유로 필수 여행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직계 가족만 입국이 허용됐다.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를 통해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가족이 8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엔 부양 자녀, 성인 자녀, 형제 자매 및 조부모 등이 포함된다. 이전까지는 무역 관련 이

또 20일부터 정부가 승인한 대학, 컬리지 및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된 유학생도 입국이 가능해졌다.

모든 입국자의 경우 14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한다.

장례식 참석, 불치병을 앓고 있는 친구 방문 등의 특정 이유가 있다면 외국인 또한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격리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의 모니터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악' 美 대선 TV 토론 때

'캐나다 이민' 검색 급증

트럼프-바이든 막장 토론에 실망감 방송 막판에 구글 '이민 검색' 최고조



지난 29일 1시간 30분동안 생중계로 열린 미국 대선 TV 토론 때 '캐나다 이민' 검색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악의 무질서한 공방전'을 보면서 이민을 떠나고 싶은 정도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3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한 시간쯤 지속되자 구글에서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how to apply for Canadian citizenship) 등 관련 검색어 입력이 급증했다.

이 검색어는 토론회가 거의 마무리되던 밤 10시30분에 최고조에 달했다는 게 구글 측 설명이다. 미국 주 별로 보면, 캐나다 국경과 가까운 매사추세츠와 오하이오, 미시건주에서 이런 검색어 입력이 많았다.

헨슨&컴퍼니 변호사 사무실

한국어 법률 상담 403-537-8861

"법률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까? 서두르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만드십시오!"

변 호 사



Gary E Hansen
캐나다 최고의 이민변호사



Ben Plumer
소송 / 개인상해 / 이혼 전문 변호사

법 무 사



에릭 김

- 부동산
- 여권 및 영주권사진
- 개인상해
- 공증
- 위임장
- 유언장 & 상속
- RCMP 범죄경력서를 위한 지문조회

미국이민 · 캐나다이민 · 회사법 · 공증 · 부동산 · 유언장 & 상속 · 이혼 · 위임장 · 개인상해 · 소송

HANSEN & COMPANY

558 - 9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S1 www.hansen-company.com / Tel. 403-261-6890 / Fax. 403-263-1632